

No.56

Japan Weekly Digest

2010. 10. 9 ~ 10. 15

□ 금주의 이슈

- 개각 후 첫 중의원 보궐선거, 민주·자민 총력전
- 엘피다 등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
- 도요엔지니어링, LG그룹과 그린비즈니스 합작회사 설립
- 아시아 최대 규모, 통합 자스닥시장 출범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간 총리, 한국과 중국에 환율정책 책임 요구
- 요네쿠라 경단련회장, 엔고는 비정상, 환율개입 건의
- 日公적연금, 한국 등 신흥국 투자확대 발표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오하타 경산성,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개선 요구
- 경산성, 재무성에 원환율 매입개입 요청
- 경산성, BOP 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
- 파나소닉, 도호쿠대학과 신형 산업용 로봇개발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일본을 위협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약진-월간, 선택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- 개각 후 첫 중의원 보궐선거, 민주·자민 총력전
 - 간 총리 개각 이후, 24일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의원 보궐 선거에 민주, 자민, 공산 등 5명이 후보 등록
 - 홋카이도 교직원조합의 위법헌금 사건으로 민주당 고바야시 지요미 前중의원 의원 사임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로 「정치와 돈」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간 내각에 대한 평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
 - 보궐선거 결과는 간 총리의 정권운영과 다수파가 다른 중·참의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민주, 자민 양당은 이번 선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
- 엘피다 등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
 - 일본 엘피다, 샤프, 동경대 등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인 저항변화 메모리 (ReRam)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고 닛케이신문이 13일 보도
 - 엘피다, 샤프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를 공동개발, 2013년까지 실용화함으로써 한국 삼성전자와 도시바에 대항하는 것이 목표
 - 이번 공동 개발되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는 **낸드플래시의 1만 배 속도로**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, 전력소비량 절감도 가능함
 - *실용화되면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수초 내에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음
- 도요엔지니어링, LG그룹과 그린비즈니스 합작회사 설립
 - 도요엔지니어링의 한국법인과 LG그룹이 100%출자한 “서브윈”이 그린 비즈니스 사업추진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
 - * 회사명은 LG-도요엔지니어링(자본금은 100억으로, 서브윈이 70%, 도요가 30% 출자)
 - 그린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LG그룹과 논 메탄 하이드로 카본 분야 진출을 목표로 했던 도요그룹의 전략이 일치
-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합 자스닥시장 출범
 - 오사카증권거래소(OSE)는 자스닥시장과 헤라클레스시장을 통합한 자스닥 시장을 12일 출범한다고 발표
 - 통합자스닥은 시가총액 9조엔(1,090억 달러) 규모로 한국의 코스닥을 추월, 아시아 최대의 중소기업 주식거래소가 될 전망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간 총리, 한국과 중국에 환율정책 책임 요구

- 간 총리는 13일,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글로벌 통화절하 경쟁과 관련, “특정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만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도하는 것은 G20 협력 틀에서 벗어나는 것”이라고 지적
- “한국과 중국도 공동의 틀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.”고 강조
- 노다 재무상은 “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기 전, 광주에서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회의가 개최된다.”면서 “통화절하 경쟁이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것이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그 역할을 엄하게 추궁 당할 것”이라고 언급

○ 요네쿠라 경단련회장, 엔高는 비정상, 환율개입 건의

- 요네쿠라 경단련회장은 12일, 정례기자회견에서 “엔-달러 환율이 82엔을 밀도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, 수출경쟁력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”고 언급
- 정부와 일본은행에게 “환율개입을 포함, 재정금융정책은 기동성을 갖고 대처해 주어야 한다.”고 건의
- 日·中관계 개선에 대해 “日·中관계 정상화를 위해 포럼 등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정치가끼리 핫라인도 강력한 수단이 된다.”고 언급

○ 日공적연금, 한국 등 신흥국 투자확대 발표

- 공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(GPIF)은 12일, 내년부터 한국 등 신흥국에 주식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
- 현재,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액은 300억 엔 정도로 GPIF는 운용규칙을 개정, 내년부터 신흥국에 대한 주식 비율을 2%정도 확대할 방침
- * 금년 3월말 기준 GPIF 운용자산금액은 122조엔, 외국주식 투자규모는 약13조엔
- * 현재 운용규칙에서는 미국·유럽 등 선진국에만 투자 가능
-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 투자하여 운용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
- 대상 국가는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 등 신흥4개국(BRICs) 이외에 한국, 대만, 태국, 터키, 멕시코 등도 포함시켜 약20개국이 투자대상 후보국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오하타 경산상, 중국의 對일본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개선 요구
 - 오하타 경산상은 12일, 중국에서 일본으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“아직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”라고 언급
 -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, 對대신을 파견하는 등 중국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힘
 - 경제산업성이 희토류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(8~11일)한 결과, 중국의 희토류 수입 규제가 40%정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옴
 - 이에 대해 오하타 경산상은 “개선된 사항은 서류상의 수속절차로 화물에 대한 검사는 더 엄격해지고 있다”고 비판
- 일본 산업계, 경산성에 원-환율 매입 개입을 건의
 - 경제산업성은 산업계 건의를 받아 재무성과 일본은행에게 달러이외에 한국 원화에 대해서도 개입검토를 요청했다고 14일, 닛케이신문이 보도
 - 한국 관계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,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언급
 - 경산성은 산업계 건의로 재무성에 원저시정을 위한 개입검토를 정식으로 요청
- BOP 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
 - 경제산업성은 13일, BOP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BOP비즈니스센터(www.bop.go.jp)」를 설립했다고 발표
 - 약5조 달러로 예측되는 거대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
 - BOP센터는 BOP비즈니스 정보제공(지원정책·제도, 센터조직, 매칭지원, 이벤트 정보, 국별 정보·보고서, 운영협의회, 메일매거진 등)과 상담창구 기능을 수행
- 파나소닉, 도호쿠대학과 신형 산업용 로봇 개발
 - 파나소닉은 12일, 사람의 손동작으로 해왔던 복잡한 조립공정 작업을 재현시킬 수 있는 신형 산업용 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
 - 연말까지 실증실험을 실시하고, 2013년까지 실용화하는 것이 목표
 - 로봇은 관절 축을 구성하는 모터에서 ARM에 접속하는 형태의 「패럴렐 링크 로봇」으로 내장된 6개의 모터를 동시에 컨트롤하는 고도의 제어시스템
 - * ARM을 동시에 6개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유연하면서도 복잡한 움직임을 재현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“일본을 위협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약진”

한국정부의 국산화정책과 원저를 배경으로, 한국중소기업은 일본의 산업 기술을 흡수하여 일본기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내용

▷ 한국의 부품·소재 국산화정책

○ 일본기업에게 압력으로 작용

- 한국의 부품·소재 국산화정책은 일본 부품·소재기업에게 유·무형의 압력으로 작용
- 한국은 일본기업에게 한국에서 생산과 합작법인 설립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
- 한국기업은 일본기업과 합병을 통해 기술·노하우를 흡수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
- * 다이니폰 스크린제조(DNS), SES 등

○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본소재기업

- 일본기업은 최대 고객인 한국의 현지생산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
- 일본기업의 구매력 저하, 엔高 문제 등으로 입지가 줄어든 일본기업은 한국기업과 협력하는 것 이외는 다른 선택 대안이 없어 고민

▷ 인맥을 통한 수주의 문제점

○ 삼성, LG등 대기업 출신 인재를 활용한 중소기업정책

- 대기업 출신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설립, 일본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흡수하여 놀라운 수준으로 성장
- 40대 젊은 나이에 퇴사한 인재가 국산화정책 지원을 받아 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이런 중소기업은 대기업계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과 일심동체(계열회사처럼 행동)

○ 한국중소기업의 성장전망 : 향후 10년간은 성장지속

- 한국 대기업의 성장이 지속되는 한, 중소기업의 성장도 지속되는 호순환 메커니즘
- 대기업 승진에서 탈락한 인재라고 해도 일본 중소기업과 달리 국제 감각과 실무에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국제화에도 적극적이고 글로벌화에도 성공

▷ 문제점: 대기업병으로 인재의 관료화

- 한국기업의 「중견사원은 우수하지만 예스맨이 많고, 신입사원은 입사가 목적이어서 실무능력이 결여되는 경향」에 있음

▷ 시사점

-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질수록 일본은 한국 기업을 경계할 가능성이 큼으로 어느 나라가 강하다, 약하다를 논하기보다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 더 중요

*출처: 월간 선택(2010.10.1: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고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잡지)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엔고·디플레이 대응을 위한 긴급대책』 경산성, 10월 9일
*출처: <http://www.meti.go.jp/topic/downloadfiles/101008strategy01.pdf>
- (2) 『2011년도 예산 전망』 NISSEI 기초연구소, 10월 9일
*출처: 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econo_letter/2010/we101008.pdf
- (3) 『엔고관련 기업도산건수 동향조사』 제국데이터뱅크, 10월 9일
*출처: <http://www.tdb.co.jp/report/watching/press/pdf/p101002.pdf>
- (4) 『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』 일본무역보험, 10월 13일
*출처: http://nexi.go.jp/service/sv_m-tokusyu/pdf/201010_1_1.pdf
- (5) 『양극화되는 인도 중산층에 대한 공략』 미쓰비시종합연구소, 10월 13일
*출처: http://www.mri.co.jp/NEWS/column/thinking/2010/2022710_1805.html
- (6) 『당면한 일본경제대책의 과제』 일본은행, 10월13일
*출처: <http://www.boj.or.jp/type/press/koen07/data/ko1010a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10월 11일(월)	○ 체육의 날 (휴일)
10월 12일(화)	○ 9월 소비자동행조사 발표(내각부) ○ 요네쿠라 경단련회장 기자회견 ○ 가스인프라 정비에 관한 워킹그룹 개최(경산성)
10월 13일(수)	○ BOP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(경산성): www.bop.go.jp ○ 제17회 한·일(큐슈)경제교류회의 개최(기타큐슈) ○ 「2010 한국부품산업전」, 「글로벌 파트너십 일본2010」 개최(도쿄)
10월 14일(목)	○ 제1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(기타큐슈) ○ 日·인도네시아 경제포럼 개최 ○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개최(서울)
10월 15일(금)	○ 일본은행 지점장회의 개최 ○ 8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